

## 2020년도 2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 심사총평

2020년도 2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에는 총 4개 언어권에서 5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2건, 러시아어 1건, 일본어 1건, 헝가리어 1건 등이었으며, 행사성격별로는 문학행사 1건, 학술행사 2건, 문예지 1건, 기타 1건(한국문학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었다.

2020년 4월 13일~14일에 진행한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수된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각기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본 사업의 방침인 해외교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의 원칙’에 따라 부적절한 항목의 금액을 제외하였고, 예산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의 지원액을 다소 삭감하였다. 각 사업의 선정 이유를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북미 한국학회 워크숍(KLA)은 중요도가 높은 영어권의 핵심이라 할 북미의 한국(문)학 전공 학자들의 연례 사업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행사라서 올해에도 적절한 규모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어권의 또 다른 지원 신청인 MPT 역시 실효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라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러시아 문예지 <유노스티>의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사업도 러시아의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다만 인쇄 등 제작비와 발송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삭감하도록 했다. 일본 쿠온 출판사의 한국문학 100년사 강의 동영상과 책자 제작도 강연자와 출판사가 공히 신뢰할 만하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강연원고 녹취록 작성, 원고 집필, 번역료 집필 교정, 인쇄, 제작처럼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 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헝가리 문학행사 ‘기억의 문장을 걷는다’는 한국인들의 피해가 컸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기억하고 소수어권인 헝가리에 한국문학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국 문인들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기존의 번역원 지원 사업이 단행본이나 잡지 출간 또는 학술회의와 낭독회 같은 행사 위주였다면 갈수록 온라인과 영상쪽 비중이 높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세를 염두에 두고 번역원 지원 내역과 지원 여부 판단 기준, 사후적 판단 근거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부담 하한선 10%가 너무 낮

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한 사업들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지원 여부 판단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지원의 효과를 확인해서 추후 사업 지원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4. 17.

심사위원장            최 재 봉 (인)